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12.24. ~ 2019.1.17.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필리핀 바탄반도주립대학
수업	1:1수업 4번, 그룹 수업 4번 총 하루에 8개의 수업을 듣는데 50분짜리 수업이다. 수업은 듣기,읽기,단어,토익스피킹 수업을 듣고 토익스피킹 수업은 그룹으로 듣는다. 1교시가 8시에 시작이라 아침을 먹는 학생이라면 대략 6시반에는 기상을 해야되서 이러한 스케줄에 적응하려면 처음에는 매우 힘들다고 느낄 것이다. 대체적으로 수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편이었고 숙제나 테스트는 선생님들마다 달라서 어떠한 선생님을 만나냐, 자기의 수업태도에 따라 달린것같다. 그래도 엄격한 분위기에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Activity	주말 액티비티는 요트투어, 리조트 투어, 클락 쇼핑몰이 있었다. 요트 투어 때는 바다 수영을 하고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쉬고싶은 사람은 요트 안에서 쉬면 되었고 리조트 투어때도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을 주고 자유롭게 놀면 되었다. 평일 액티비티는 매주 금요일마다 Fun Friday가 있기 때문에 긴 양말을 신거나 체크무늬 옷 입기 등등 금요일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옷을 입는 것이 있다. 다른 액티비티로는 목요일마다 Getting to know,영화보기,체육 활동들을 하는 것이 있었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겨울에 수빅은 한국에 초여름 날씨와 비슷하다. 덥긴 하지만 한국의 한여름과 같은 날씨가 아니다. 겨울에는 비가 거의 안오지만 이번에는 비가 좀 오는날이 꽤 있어서 필리핀 현지 선생님들도 놀랐다. 접는 우산 하나 정도 챙기는 것을 추천한다.
안전	통금시간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걱정은 한 적이 많이 없었다. 쇼핑 몰마다 어딜가나 경찰들도 배치되어있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걱정은 딱히 안해도 되는 것 같다,
숙소	학교기숙사(v)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기숙사에 대한 기대를 하진 않았어서 시설에 대한 큰 실망은 없었는데 바퀴벌레, 도마뱀, 벌 등이 나왔던 적이 있어서 놀랐다. 아마도 첫 주에는 벌레들 때문에 벌레잡느라 조금 고생할 것이다.. 방에서 시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문의를 하면 금방 해결되는 편이었다.
식사	학교식당(v) 홈스테이 () 외부식당 (v) 기타() 학식은 점점 맛있어져서 만족스러웠고 한식에다 가끔 필리핀 반찬이나 간식이 나와서 먹기 좋았다. 외부식당은 솔직히 필리핀 전통 음식점을 많이 보진 못했고 대부분 치밥, 피자, 패스트푸드점이었고 이외에도 여러 식당이 있긴 하지만 입맛이 안맛을 일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교통	무조건 다운타운을 가려면 FB나 택시를 타야한다. FB값은 13-15페소이고 저녁에 기숙사 들어갈 때 SLC학생만 타면 스페셜트립이라면서 덤탱이를 씌운다(한 사람당 20-30페소). 이럴 땐 차라리 택시를 타거나 현지인들도 같이 타는 FB를 기다려보고 안되면 어쩔 수 없이 탈 수 밖에 없지만 흥정을 시도해보길 추천.. 택시는 150-300페소로 타는 인원마다 달라지긴하는데 적은 인원엔 비싼 값을 부르면 흥정을 해야한다(무례하게x)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75만원	출국 전 사전 납부
개인 지출 비용	46만원	식비,교통비,마사지,쇼핑
합계	121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400달러를 가져오는 것을 추천하심. 400달러 환전 할 때 한화로 45만원 정도였다. 술을 많이 먹진 않았지만 쇼핑과 매주 한번씩 마사지를 받아서 마지막날에는 조금 더 돈이 필요했었다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조금씩 돈을 빌리거나 페소를 팔기도 했다. 그래서 400달러보단 조금 더 챙겨오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에 돌아가기전에 다들 정이 들어서 선생님들께 선물을 많이 주는데 편지와 한국음식등을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다. 한국음식을 주고싶다면 한국에서 챙겨오는게 더 낫다. 나는 뭐 선물 안 줄거야~해도 다 그때되면 정들고 그래서 결국엔 다 준비한다. 축팩을 가지고 오면 짐 쌀 때 좀 더 수월하다. 샴푸,바디워시는 챙겨오는 것보다 룸메이트들과 공동구매하고 다 쓰고 거기서 바로 버리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처음에는 갑자기 뽀뽀한 스케줄에 적응하느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적응되면 할만하다. 선생님들 말도 뽀 뽀 말인지 잘 안들려서 수업하기 힘들었는데 점점 뽀라 말하는지도 들리고 나중에는 서로 영어로 장난도 쳐서 내가 영어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게 신기했다. 개인적으로 어학연수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늘고 삶에 대한 동기부여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얻어서 4주의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졌었고 순천향대 학생들에게 꼭 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싶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시티투어	Subic Bay



기숙사 시설 (수영장, 농구대)



Fun Friday



SM타운에서 집가는길



리조트 투어